

[특집]

##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

■  
하 태 옥

[서울 대신학교 영성양성 신부]

---

서 론

1. 사제 독신의 의미: 신학적 고찰
    - 1.1.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
    - 1.2. 사제 독신의 의미
  2. 사제 독신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 2.1. 인간의 성(sexualità)과 독신
    - 2.2. 독신 삶에서 겪는 심리적 조건들: 어려움과 풍요로움
    - 2.3. 독신의 왜곡들
  3. 독신 삶을 위한 양성적 제안들
    - 3.1. 자기 알기
    - 3.2. 감수성의 양성
    - 3.3. 일상생활 관리하기: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
    - 3.4.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 결 론
- 

### 서 론

교회는 사제의 독신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르심이요 선물로 정의하며, 사제들이 독신을 법적인 규정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이를 넘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여 살도록 초대한다.<sup>1)</sup> 하지만 이 초대와 달리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독신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나 선물이 아닌 사제직

---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0항.

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독신 삶이 성소적 가치를 향해 초월해 가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말하자면, 독신이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규정으로 부과된 외적인 형태와 금욕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는 독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제가 독신 삶을 하느님의 부르심의 차원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유지해야 할 법적인 규정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 독신은 삶의 보화와 선물을 발견하도록 하기보다 사제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짐으로 체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소의 여정을 가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그저 신학적 이론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제의 구체적 삶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양성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발표된 새로운 사제 양성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은 다가오는 시대에 요구되는 사제 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문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헌은 기존의 '철학과'와 '신학과'로 구성되었던 지성적 교육 중심의 관점에서 '예비 과정', '제자 과정', '동화 과정' 그리고 '성소 통합 과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사제 양성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다. 즉 사제 양성은 단순히 지성적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성뿐만이 아니라 인성, 영성, 사목 분야에서의 다양한 면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 더불어, 사제의 양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으로서 신학교에서의 초기 양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제 생활 전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2) 참조: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2016), 57~79항.

한다고 하는 지속 양성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sup>3)</sup> 이 문헌이 제시하는 이 강조점들은 사제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하느님에게서 받은 부르심이 사제 고유의 인격과 삶 안에 서서히 뿌리내려 가도록 하는 양성적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무엇보다 (미래의) 사제들이 독신 삶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며, 그야말로 하느님의 선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룰라(Rulla)에 의하면,<sup>4)</sup> 성소의 여정을 가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양성적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대한 이상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함께, 사제의 인간학적 차원과 관련한 주관적 진리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장에서 독신 성소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 규명한 후에, 이어서 독신 삶에 관계된 사제의 인간학적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양성적 실천들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 1. 사제 독신의 의미: 신학적 고찰

독신은 배우자와의 결혼을 포함한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제의 독신 삶 선택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고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에게 독신을 단순히 의무적인 제도가 아닌 ‘하늘나라를 위한’ 부르심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촉구한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독신 제도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신

3)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6항, 80-83항; Cf. P. S. Morgalla, *La formazione oggi come sfida per i domani*, GBP, 2018, p.93.

4)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EDB, 1997, p.360.

삶이 지나는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는 사제 성소의 삶에서 독신이 주는 특별한 보화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교회의 이러한 지향에 따라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사제 삶에서 독신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제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향해 초월해 나아가도록 끌어주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사제 독신의 삶이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신학적 차원에서 규명해볼 것이다.

### 1.1.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

사제가 선택하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뿌리를 둔다. 그리스도의 독신 삶에 대하여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그 간접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언급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여러 단서들과 함께 예수께서 독신으로 사셨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sup>5)</sup>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 독신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구약성경을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혼인하고 출산하여 많은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 것을 하느님께 버림받았음의 표지나 수치스러움으로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인식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이런 인식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5)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g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Siena, 2015, pp.92-93; 마르 3,31; 6,3; 요한 6,24; 7,3; 사도 1,14.

6) 참조: 창세 28,3; 시편 127,3-5; 128,1-3; 사무엘 1,2-20; 루카 1,25("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어지고 있음을 신약성경의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처럼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대상이 아니었던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독신 삶으로의 선택에는 그분의 특별한 의도와 지향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온전히 그분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를 향한 정결한 사랑은 그분 삶의 전체를 관통한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인과 함께하는 등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투신의 행위로 드러난다.<sup>8)</sup> 즉 성부에 대한 정결한 사랑이 그분의 구원 계획인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투신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독신 삶은 이 정결한 사랑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실현이다. 결국 갈림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독신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독신 삶의 특징을 특별히 밝혀주는 단서를 마태오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태오 복음 19장 12절은 독신에 대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독신 삶과 관련하여 저자는 ‘고자’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근본주의적인 따름으로의 추구를 표현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구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절들이 이어지는 만큼,<sup>10)</sup> 이 표현은 뒤를 돌아보

---

주셨구나”).

7)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굶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루카 1,25).

8) 참조: 마태 8,14-16.

9) Cf. J. M.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Bologna, 2016, pp.77.

10) 이 구절 뒤에 이어서 ‘예수님과 어린아이’,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20절에 ‘따름과 보상’의 내용이 이어서 소개된다; Cf. D. Marzotto, “Il celibato nel Nuovo Testamento”, *La scuola cattolica* 110(1982), 355.

지 않고, 갈라짐 없는 마음으로의 포기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완전한 포기는 '하늘나라 때문에'라는 구절의 표현과 연결된다. 이는 복음의 맥락에서 독신의 선택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라기보다 '하늘나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선택임을 가리킨다. 결국 이 표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마태오 복음의 맥락에서 독신 선택이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금욕적인 포기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선택, 즉 복음 선포의 근본인 하늘나라로의 초대임을 보여 준다.<sup>11)</sup>

이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한 온전한 투신 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독신 삶을 규정짓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의 독신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차이점을 보인다. 요한의 독신 생활은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는 지향 안에서 광야에서 혼자 머물며 세상과 거리를 두는 금욕적인 삶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이들, 병자들, 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연민으로 대하시는 등 그분의 삶은 독신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방향 지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sup>12)</sup> 갈롯(Galot)에 의하면, 예수님의 독신은 그야말로 육화의 신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분의 독신 선택은 세상과 분리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맥락 안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하는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 이처럼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은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으로서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독신, 특히 사제의 독신 삶의 제일 기준이 된다.

11)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mas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p.109.

12) Cf. J. M.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pp.74-75.

13) Cf. J. Galot, "Il celibato sacerdotale alla luce del celibato di Cristo", *La civiltà cattolica* 20(1969), 365.

## 1.2. 사제 독신의 의미

그리스도 이후에 초기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매료되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사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의 많은 이들은 그분 사랑의 구체적 삶의 방식이었던 독신 삶을 공유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증언하였다.<sup>14)</sup> 즉 초기 교회 안에서 제자들의 독신 선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매료되어 시작된 그리스도를 따름 (Sequela Christi)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선택되고 실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독신은 의무적인 규정으로 확립되어 갔다. 300년 경 엘비라(Elvira) 공의회에서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부부관계의 ‘완전한 절제’의 의무가 처음 명시되었다.<sup>15)</sup> 하지만 당시 의도했던 ‘완전한 절제’는 성직자들의 혼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139년에 이르러 제2차 라테란(Laterano) 공의회에서 사제들의 혼인이 금지되는 독신 삶의 의무가 명시되었다.<sup>16)</sup> 이렇게 사제의 제도적인 독신을 실천해오면서 한편에서는 사제들의 독신 의무를 반대하는 여러 이견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직이 그 자체로 독신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사제들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의 삶이 주는 보화를 재확인하고 이 규정을 고수할 것을 선언한다. “독신 생활은 많은 점에서 사제직에 적합하다. [...] 사제직을 지원하는 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을 이 거룩한 공의회는 거듭 승인하고 확인한다.”<sup>17)</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도 현대에 사제 독신의 위기에 응답하

14) R. Fabris, “Gli eunuchi per il Regno dei cieli”, *Parola Spirito e Vita* 12(1985), 142.

15) “주교, 사제, 부제뿐 아니라 직무에 임명된 모든 성직자들이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직자의 명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필자역, Concilio di Elvira, can.33: C. Cochini, *Origini apostoliche del celibato sacerdotale*, Roma, 2011, p.186).

16) Cf. Can 7, in *Decrees do the Ecumenical Councils: Volume I*, Sheed&Ward an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p.198.

17)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고자 이 삶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공의회 이후 사제 독신에 대한 첫 회칙인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sup>18)</sup>은 사제직과 독신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점을 3가지 차원(그리스도론적 차원, 교회론적 차원, 종말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제 독신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이후에도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심화 발전되어 간다.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닮고 따르고 싶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일차적인 주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제는 사제 서품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즉 사제 서품을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며, 그 힘으로 착한 목자이며, 교회의 머리요, 배필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된다.<sup>19)</sup>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제는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바쳐 응답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사제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Alter Christi*)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스타일을 발견한다.<sup>20)</sup> 그러므로 사제에게 있어서 독신 삶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닮고 따르기 위한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표징이 되게 하고, 그분께 더욱 온전히 투신하도록 돕는 도구인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사제 독신의 그리스도론적 차원은 사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론적 차원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머리요 정배이신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사제는 그분께 동화되면서 동시에 교회에 투신한다. 다시 말하면, 사제는 성품성사로 교

18) 참조: 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 AAS 62(1970), nn.19~34.

19)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AAS 84(1992), n.50.

20) Cf. C. Sepe, “Attualità del celibato sacerdotale”, in C. Sepe / M. Pacenza(ed.), *Solo per amore. Riflessioni sul celibato sacerdotale*, Cinsello Balsamo, 1993, p.63.

21)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p.276.

회의 머리이시고 배필이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배우자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교회에 투신하게 된다.<sup>22)</sup> 더 나아가, 사제의 독신 삶은 궁극적으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독신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헌신하는 사목적인 의미와 동기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은 목자적 사랑의 표징이며 자극제이다.<sup>23)</sup>

또한 동시에 독신 삶은 무엇보다도 초월적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말론적 의미도 지닌다. 즉 독신 삶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보여 주는 예형이요 표징으로서, 사제는 이를 통해서 이미 현존하는 미래 삶을 보여 주는 생생한 표징이 된다.<sup>24)</sup>

이처럼 사제의 독신은 다른 독신과는 달리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으로서 그 고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형태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어 봉사하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사제직 성소는 또 하나의 부르심의 가치로 받아들여진 독신 삶 안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 2. 사제 독신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성소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전해지며 인간 본성의 현실 위에 작용한다. ‘하늘나라를 위한’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인 독신 삶 역시 인간 조건의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실현되는 만큼,<sup>25)</sup> 사제 양성에 있어서 독신이라는 부르심의 객관적인 내용, 즉

22) 참조: 「사제 독신 생활」, 26항.

23) 참조: 「교회 헌장」, 42항.

24) 참조: 「사제 독신 생활」, 34항;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25) Cf. B. Sebastian, *Pienamente in Cristo*, San Paolo, 2015, p.12.

따라가야 할 이상적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뿐 아니라, 사제의 인간 조건과 관련한 주관적 진리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독신 성소를 살아가는 주체인 사제에 대한 인간학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사제가 처한 인간의 본성적 조건, 특히 성적 조건이 독신 성소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한 이 조건 안에서 사제는 어떻게 응답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단서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 본성인 성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사제가 독신 삶의 조건 안에서 처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에 대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신의 왜곡된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

## 2.1. 인간의 성(*sessualità*)과 독신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삶인 독신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성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 사제의 성적 본성은 그 자체로 독신 삶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인간의 성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인간은 누구나 성이라는 조건에 존재론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성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성적 조건은 인간의 전체 구조를 관통하여 인격 전반<sup>26)</sup>에 영향을 미친다.<sup>27)</sup> 즉 남성이나 여성의 조건은 느끼는 방식, 관계하는 방식 그리

26)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존재이다.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의 전 존재를 관통한다: 생식성, 육체성, 정서성 그리고 영성. Cf. A. Cencini,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EDB, 2008, pp.52~53.

27) 참조: 신앙 교리성, 「성 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1975), 1항.

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특징들을 조건 짓는다: “인간의 성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정서,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타인과 친교를 이루는 능력에 관련된다.”<sup>28)</sup>

이런 의미에서, 성은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독신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활용하고 실현해 가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이처럼 사제의 인격 전반을 관통하는 본성인 성은 사제의 독신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독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를 통합적으로 관통하는 성은 “나에게 너를 그 모든 다름과 타자성 안에서 맞아들이도록 해 주는 관계적 에너지이다.”<sup>29)</sup> 성은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처럼 자신과 다른 존재를 향해 닫혀 있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도록 한다. 이러한 성의 특성 안에서 인간은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열려있게 된다. 그래서 성은 인간의 근원적 특성인 관계성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증여적 에너지의 형태로 표현된다.<sup>30)</sup>

하지만 동시에 성은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 뿌리내려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즉 관계적 특성 안에서 남을 필요로 하도록 느끼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한다. 이처럼 성은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서 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기만족과 자기초월 사이의 긴장 안에 놓여 있다.<sup>31)</sup> 그러므로 성은 정결한 사랑으로 교육되고 통합되고 고양되어 성숙함에 도달할 때만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진정한 인간의 자질로 드러나고 실현된다.<sup>32)</sup> 이처럼 성은 근원적 긴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통합되어 성숙해가는 끊임

28) 『가톨릭교회 교리서』, 2332항.

29) 아마테오 첸치니,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국춘심 옮김, 생활성서, 2011, 82쪽.

30) Cf. Giovanni Paolo II,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I-1, 4.

31) 참조: 아마테오 첸치니,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73쪽.

32) 참조: 교육성서, 「사제 독신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1974, 6항.

없는 여정으로 부름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이라는 자연적 질서 안에 이미 자기증여적 특성이 새겨져 있으며, 인격의 자연적인 발달과 성숙의 과정 안에서 자신을 넘어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초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죽음으로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리스도교적 차원에서의 사랑과 비교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기증여를 향한 에너지와 경향이 인간 체험의 한 부분으로서 성이라는 인간 본성 안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보여 준다.<sup>33)</sup>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독신 성소의 삶 안에서 인간의 성적 에너지는 이 성소를 실현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된다. 즉 사제 고유의 성적 본성이 독신 삶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가운데, 사랑을 향한 성소의 삶 역시 충만히 실현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제는 “어떻게 ‘나의 내어줌’이 독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끊임 없이 마주해야 한다. 사제가 자기증여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카리스마와 영성으로 독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본인의 성을 충만히 실현하는 방식으로 독신 성소의 삶을 실현해 내지 못하면, 사제는 외적으로 포기과 희생을 살면서도 그 독신의 내용은 왜곡되어 가게 된다.<sup>34)</sup>

## 2.2. 독신 삶에서 겪는 심리적 조건들: 어려움과 필요로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과 높은 가치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독신을 살아가는 삶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유한 삶의 형태이다. 각 삶은 각자의 형태에 따른 나름의 보화와 희생을 함께 지낸다. 이와 같이 독신자는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른 고유한 심리적 조건을 가진다.

독신자는 가정생활을 포함하여 성적 행위, 즉 생식 능력의 사용

33)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2011, p.267.

34)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Milano, 2008, p.109.

을 포기한다. 사실 성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단순히 성적 만족의 욕구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얽혀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욕구들도 함께 소외될 수 있다.<sup>35)</sup> 욕구는 인격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만큼, 주요 욕구들이 삶 안에서 구조적으로 좌절될 때, 인격의 작용이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의 인격적 경계를 넘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격성의 욕구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이다. 파트너와의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이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공격성의 발휘는 사랑의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하지만 독신자의 경우, 성적 관계라는 이러한 공간을 포기함으로써 공격성이 표현될 공간이 그만큼 축소된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공격성이나 화를 표출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안에서, 사제는 일상 안에서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사제는 이중으로 공격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공간에 놓여진다. 이 같은 일상의 구조 안에서 공격 욕구가 지속적으로 소외될 때, 이는 사제의 인격이 미성숙함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sup>37)</sup>

또 한편으로, 사제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누군가와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소외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는다. 이 친밀함과 관련된 욕구 역시 인격 작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속적으

35) 성은 인격의 ‘소우주’로서 인격 안에 있는 구조들이 성 안에 종합적으로 발견된다. “만약 인격이 인간에 속하는 모든 일련의 특징들을 조직하는 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성은 하나의 특징이나 특징들의 단순한 하위 집합이 아니라, 인격의 본래의 ‘소우주’이다”(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39).

36) Cf. L. Balugan, “Quale maturità per la vita di coppi? Il contributo di Otto Kernberg”, *Tredimensioni* 2(2005), 253~254.

37)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p.48-49.

로 소외되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사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성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역동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상호 역동이 동시에 발휘되는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욕구의 역동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독신의 조건 안에서 이런 힘을 행사하는 공간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남자로서 확인받는 체험, 남자로 느끼는 체험 등 자신을 선언하는 체험의 공간 역시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sup>38)</sup>

이처럼 독신의 조건은 여러 중요한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sup>39)</sup> 이는 인격의 작용이나 성숙에 영향을 미쳐 어떤 면에서의 미성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현실은 사제의 일상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진지하게 반영되고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한편 이런 독신 삶의 조건은 독신자의 인격에 어떤 면에서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면에서의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40)</sup> 무엇보다도 독신 삶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며 그분의 정결함과 가난함을 선택하는 삶이다: 사제는 독신 삶 안에서 가정을 포함하여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와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정서적 체험과 보상 등의 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포기의 삶 안에서 사제는 이른바 '가난한 이'로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유한다.<sup>41)</sup> 다시 말해, 물질적 가난함뿐만 아니라, 정서적

38)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p.52-57;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Bologna, 2015, p.55.

39) 이는 독신 삶이 제공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건이나 환경이 인격의 발달과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신자가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필연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삶의 조건이 가능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가정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 삶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 안에서 각 삶의 고유한 열매가 맺어진다.

40) 독신 생활이 어떤 면에서의 부족함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의 부유함을 제공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각 삶은 각자 다른 방식의 풍요로움과 가난함을 제공하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Cf. J.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p.67.

보상에 있어서도 가난함에 머물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난한 이의 시선, 하느님을 향한 정결한 시선을 사제 역시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사제는 독신 삶 안에서 정결함의 방식, 즉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지니도록 초대된다.<sup>42)</sup>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제는 어떤 면에서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성숙한 ‘어른’이기를 요구받는다. 이처럼 독신 삶으로의 선택은 풍요로움과 약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이라는 두 현실 사이의 역설적 긴장 가운데에 놓여지는 선택이다. 사제는 이 두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 식견을 가지고 이 역설 안에 머물 줄 알아야 한다.<sup>43)</sup>

한마디로, 독신 삶의 조건은 어떤 면에서의 미숙함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면서 사제의 고유한 색깔을 정의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투신의 삶으로 수렴된다. 사제는 이러한 독신의 조건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독신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다. 결국, 독신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규정으로서 이해하고 부정적인 포기나 희생에만 수동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삶이 주는 풍요로움 안에서 독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제 성소가 독신 삶 안에서 더욱 충만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41) 가난함은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 벌거벗은 상태, 즉 자신의 본래 인격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현실인 약함 안에서 내 인간성에 아름다움을 주는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며, 내 안에 있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가난함 안에서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질서에 속하게 된다(Cf. S. Guarinelli, *Un canto a tre voci- aspetti psicologici dei consigli evangelici*, Ancora, 2006, p.27).

42)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131.

43) Cf. *Ibid.*, p.127.

### 2.3. 독신의 왜곡들

앞서 언급했듯이,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삶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의 초대이며, 이 초대는 사제 고유의 인간 조건, 특히 자신의 성이 부르심에 통합되고 실현되어 가면서 참된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반대로 사제의 성이 미숙함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할 때, 독신 삶 역시 초대받은 본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간다.

먼저, 사제의 성이 하느님 신비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영적인 현실과 통합되도록 질서 지워져 있는 성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지 못하고 육체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제의 독신 삶 역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영적인 의미를 취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외형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 또는 사제가 성을 폄하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제는 성을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독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무시하려 하거나, 차갑게 방어적으로 머물게 된다. 이런 사제는 상대를 포함하여 자신의 내면을 잃어내지 못하는 이른바 정서적 문맹으로 살아가기 쉽다. 이처럼 어떤 원인으로든, 관계를 향한 에너지인 성의 본래 특성을 독신 삶 안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독신을 살아간다는 이름하에 주변 사람에게 닫혀 자신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태도는 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며, 이는 사제 삶을 이기주의로 이끈다. 이렇게 외적인 절제의 형태는 견고해 보이지만, 자신 안에 갇혀 사랑할 줄 모르는 독신은 기능적이고 기술적으로만 머물 뿐, 부르심의 열매와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sup>44)</sup> 물론 반대로 성의 미숙함 안에서 본능적 충동의 압력에 의존적으로 휘둘리는 독신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미숙함 안에서 성소의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왜곡된 독신 안에서 성소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수록, 그만큼 독신으로 인한 포기과 절제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된다. 결국, 독신이 긍정적인 정서로 지지받지 못했을 때, 커져가는

44) Cf. A. Cencini,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pp.68-72.

정서적 긴장들로 인해 삶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가며, 사제는 이 긴장을 해결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보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보상은 문제의 뿌리를 직면하는 대신 가면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일종의 방어기재라고 할 수 있다. 보상을 찾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독신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미성숙한 방식은 진짜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제의 회심과 성장을 막고, 삶을 더 빈약하게 하여 좌절로 이끈다.<sup>45)</sup>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이 보상적 행동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신 선택으로 인해 소외된 욕구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경우, 사제 삶에서 통제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욕구의 소외 상태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면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불만족감을 주다가, 어느 순간 화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은 패턴으로 고착되어 간다.<sup>46)</sup>

또한 기본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와의 밀착된 관계를 배제하는 독신의 조건 안에서 소외되는 자기 선언에 대한 욕구는 사제로 하여금 명령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위치나 역할을 찾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지배하려는 행동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채로 자주 발견되는 보상의 형태 중 하나이다.<sup>47)</sup> 즉 사랑의 정서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한 독신은 사회적 승진이나 명성을 위한 도구로 독신을 살아가거나 남에게 힘을 행사함으로써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보상을 찾게 한다. 이 역동은 점점 발전하여 결국에 성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sup>48)</sup> 이 밖에도 사랑과 단절된 채 머물러 있는 독신은 포르노, 게

45) Cf. M. Daneli, *Liberi per chi?: Il celibato volontario nella Chiesa*, Roma, 2005, p.41.

46)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p.58.

47) Cf. G. Vella, *La comunità, croce e delizia. Le gioie e le difficoltà del vivere insieme*, Milano, 1996, p.106.

48)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pp.67-72.

임, 도박, 술, 취미나 애정적 관계로의 몰입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 추구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상을 찾는 독신 삶은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 보상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이는 점점 인격의 태도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상으로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패턴이 지속될수록, 사제는 점점 하느님에 대한 원의나 내어주는 사랑의 삶과 멀어지게 되고, 천천히 사제 및 독신 성소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법을 잊어 간다. 결국 보상에 머무는 왜곡된 독신의 방식은 서서히 사제 성소 전체의 숨을 막아, 결국 사제직 자체를 떠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sup>49)</sup>

이처럼 사제의 인간적 조건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진실되게 삶으로 응답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제한하고 독신을 미숙함에 머무르게 하는 제약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상적인 이론에 대한 교육만이 강조된다면, 성소적 가치가 사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이론과 삶이 괴리되어 추상적인 독신, 외적인 형태만 남은 왜곡된 독신으로 전락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 3. 독신 삶을 위한 양성적 제인들

시작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독신은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향한 갈림 없는 정결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제의 독신 삶은 이처럼 사랑으로 방향 지워졌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전체를 대변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한' 이 선택은 단지 어느 한 행동의 변화, 즉 결혼을 포기하는 선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의 몇 가지 특정한 면에만 국한된 선택이 아닌, 사제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선택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49)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128.

지향하는 독신은 그 사람의 모든 태도, 행동, 말, 몸짓, 관계가 하느님 사랑의 중심성을 표현하며,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놓기로 선택한 것이다.”<sup>50)</sup>

그러므로 독신자로 살아가는 선택은 근본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내포하며, 이는 인간 조건을 지닌 사제의 전 존재가 성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성숙해가는 여정을 내포한다. 이 과정은 지식의 습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제 서품을 통해 마술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는 매일의 구체적인 일상 삶에서 다양한 차원의 지속적인 양성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자’가 되어 가는 여정을 위한 양성적 차원의 계획들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 3.1. 자기 알기

이전 장에서 독신 성소의 삶에 대한 본래의 지향이 인간적 조건 안에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는 성소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향한 가치 지향적인 동기와 이와 반대로 성적 충동과 자기중심적인 욕구에 뿌리를 둔 동기가 서로 뒤섞여 근원적 긴장<sup>51)</sup> 상태에 있는 사제의 인간학적 현실을 보여 준다. 이런 모호한 동기 안에서 비일관적인 태도나 행동이 야기된다.<sup>52)</sup>

말하자면, 겉으로는 사제 성소의 가치에 응답한 사목적 관계의

50) S. Cipressa, “Ragioni teologiche e opportunità pastorali”, in Id.(ed.), *Celibato e sacerdozio*, Roma, 2000, p.58.

51) 「사목 현장」, 13항: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참으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극적인 투쟁으로 드러난다.”

52)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그 자체로 중요한 것)와 자기중심적으로 끄는 욕구(나한테 중요한 것)가 내면에서 서로 상충될 때, 겉으로는 가치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만족시키는 욕구에 대한 응답인 경우(Cf.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I*, p.128).

사랑으로만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에는 개인적인 성적 충동이나 자기증심적인 욕구에 응답한 유혹적인 동기도 함께 뒤섞여서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비일관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모호함과 비일관적인 태도 등이 양성 과정으로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일상 안에서 반복될 때, 이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스타일이 되어 가고, 사제는 점점 자신의 성소와 정체성과 멀어져 사제 성소의 삶이 주는 기쁨과는 반대의 보상을 추구하는 미성숙함 안에서 병들어 가게 된다.<sup>53)</sup>

이런 의미에서, 독신 삶을 포함한 진정한 사제 성소의 삶으로 양성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의 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양성의 출발 지점은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모호함을 직면하고 줄여나가는 과정, 자신의 약함을 더욱 의식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 그렇게 삶의 일관성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되어 가는 진정한 양성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54)</sup>

그러므로 사제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의 모호함을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제는 점차 자기 약함을 더욱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독신 삶에서 소외되는 욕구나 자기 역사 안에서 형성된 약함들로 인한 영향 등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고 밝혀가는 가운데, 사제는 점점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욱 겸손되어 하느님의 은총에 개방하고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제는 더욱 자유롭게 또한 겸손되어 성소의 삶에 응답해 가기 위한 매일의 치열한 투쟁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sup>55)</sup>

룰라(Rulla) 신부는, 사제들이 자신 안의 모호함을 밝히고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실천들을 제안한다. 우선 양성

53) Cf. A. M. Ravaglioli, *Psicologia: Studio interdisciplinare della personalità*, EDB, 2019, p.115.

54)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p.354.

55) Cf. M. Tondo, *Di fronte al progetto di vita*, EDB, 2005, p.86.

성찰이나 말씀 묵상의 일상적인 실천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숨겨져 있는 미성숙함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남들의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흘러가는 느낌이나 감정들을 잘 관찰하여 분석해 보려는 노력 등의 일상적인 실천들 역시 자신을 알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준비된 양성자에 의한 동반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실천들이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이루어 양성적 효과를 낼 수 있다.<sup>56)</sup>

### 3.2. 감수성의 양성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의 교정을 넘어서 온전한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의 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서적인 힘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독신은 실천할 힘이 약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독신 삶의 가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독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정서적 차원의 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감수성의 양성에 대한 주제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감수성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울어짐을 갖게 하는 내적 성향에 해당하며, 어떤 대상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좋은지 나쁜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판단하게 하여 관심이나 끌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끄는 정서적 에너지이다.<sup>57)</sup>

행동으로 이끄는 정서적 에너지인 감수성은 일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정들에 의해서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 즉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그 선택들에 의해서 경험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선택에 의한 경험은 내면에 정서적인 흔적을 남기며, 이는 다음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반복되고 습

56)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I*, pp.341, 361.

57) Cf. A. Cencini, *Chiamati alla bellezza*, p.57.

관화되면서 점점 자동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결정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점점 내면의 감수성을 형성해 간다.<sup>58)</sup>

이처럼 일상에서 행하는 선택들이 자신의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제는 자신의 감수성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의 선택에 임해야 한다. 만일 사제가 독신자로서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선택들로 감수성을 형성해 간다면, 독신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 열정과 기호가 다른 곳을 향해 기울어져, 일관적으로 그 삶을 실천해 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감수성 양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독신 삶은 머릿속 관념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 삶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감수성을 그리스도의 모델 위에 자신의 성소에 부합하도록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자신의 성소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질서 지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제는 자기 자신이 양성의 책임자가 되어서 자신의 감각의 사용이나 선택의 습관을 주시하면서, 자유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경험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독신자로서 정결함에 부합하는 경험을 허락하는 선택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느끼고 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과 닮아가도록 자신의 감수성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통합된 독신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 3.3. 일상생활 관리하기: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

앞서 다루었던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 안에서 내면의 모호함을 줄여가고 본인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가운데, 사제는 더 자유

58) Cf. A. Cencini, *Chiamati alla bellezza*, p.58.

59) Cf. A. Cencini, *Dall'aurora io ti cerco*, Milano, 2018, p.37.

롭고 진지하게 일상 삶을 대면하고 투신할 준비를 갖추어 간다. 이렇게 충실하고 진지하게 투신하는 매일의 일상이야말로 사제의 인격적, 성소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제 성소의 계획에 따라 일상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성숙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소의 여정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만남 안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두 가지 차원, 다시 말해 기도 생활을 포함하여 하느님 은총과의 만남과 관련한 삶의 내적인 차원과, 일상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절제하고 정돈해 가는 것과 관련한 삶의 외적인 차원이 서로 보완되고 통합된 일상은 사제 성소의 삶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토양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이 두 가지 차원 모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영성 생활은 사제 삶에 있어서 첫째 자리에 놓여진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영성 삶은 모든 신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사제의 삶에서 특별히 강조되는데, 이는 사제의 존재와 직무에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제 정체성을 유지 및 강화시켜 준다. 특히 독신 선택은 그리스도와와의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원의 위에 기초해 있는 만큼, 그리스도 인격과의 긴밀한 관계는 사제가 그분의 삶의 스타일에 동화되는데 핵심 동력이 된다. 또한 일상 안에서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사제 내면의 동기를 밝혀 모호함을 줄이는데에 도움을 주어 사제가 일상생활 안에서 더 자유롭게 은총에 순종하며 성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사제의 일상적 기도는 인간적·영적 성장을 이끌고 은총의 도움으로 진정한 성소의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힘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교회 문헌들은 사제들이 일상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정진할 것을 강조한다.<sup>60)</sup>

그런 의미에서, 독신 삶 안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외

60) 참조: 성직자성, 「사제 직무와 생활 지침」, 2013, 50항;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5항, 18항; 「현대의 사제 양성」, 26항, 40항, 48항, 50항, 80항.

로움은 사제들이 견뎌야 할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는 침묵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또한 예수님과 머물며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사제의 외로움이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장소로써 체험될 수 있을 때만이, 독신 삶이 생기를 가지고 사랑을 향해 방향 지어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sup>61)</sup>

이런 기도 생활이라는 영성적인 지지와 더불어서, 일상을 외적으로 규정하고 정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칙이나 절제의 차원 역시 사제의 일상 삶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한다. 금욕적 실천들이 강조되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절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적인 삶을 규정해주는 규칙은 내면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여러 문헌에서도 강조된다.<sup>62)</sup> 즉 구체적으로 자기 통제나 절제로 이끌어주는 삶의 외적인 규칙은 독신 삶 안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이나 유혹 등의 도전으로부터 사제를 지켜주며, 성숙한 사제의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별히 삶을 외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나 절제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정의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sup>63)</sup> 사랑으로 동기화되지 않고 방어적인 동기나 왜곡된 동기로부터 나온 절제나 극기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한다. 사제 독신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삶인 만큼 정결한 사랑의 투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4)</sup>

61) Cf. G. Daucoort, *Preli spezzati*, EDB, 2021, p.42.

62) 참조: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사제 독신 생활」, 78항; 「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53항.

63) “극기는 왕권의 행사이며 사랑의 통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랑과 극기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자기희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사랑은 극기를 촉진합니다”(「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53항).

64) 극기는 그 자체로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인 반면, 정결은 근본적으로 관계적 차원과 관련된다. 즉, 독신에서 극기는 특히 성 기능 사용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반면 정결은 다른 이와 관계

이와 함께, 사제 생활의 일상을 건강하게 조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요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일상 안에서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삶을 구성하고 조정해 가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친밀함에 대한 욕구나 공격성, 지배욕 등 주요 욕구들이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었을 때, 사제로 하여금 심리적 긴장 안에서 다양한 미성숙함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제는 사목적 맥락 안에서나 일상 관계 안에서, 또는 스포츠나 놀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주요 욕구들이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잘 정리되고 균형 잡힌 일상은 사제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감 안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 성소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일상 삶을 자기 성소에 부합하도록 정돈하고 외적인 질서를 잡아 나가는 자기 절제의 측면과 주님과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영성 생활 모두는 건강하게 독신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서로 보완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중요한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제는 독신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로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매일의 일상 삶을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의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 3.4.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그리스도의 모델에 따른 사랑을 향한 부르심인 독신은 사제의 상호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신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끄는 욕구와 함께 모호함 안에서 왜곡될 위험에 항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일에 따라 남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관계함에 있어서 독신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는 정결

---

를 전제한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태도이다(Cf. S. Guarinelli, *Il celibateo dei preti preché sceglierlo ancora?*, p.135).

로 특징지어진다.

정결은 기본적으로 절제라는 질서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결은 자기 안에 갇혀서 욕구의 억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을 지향한다. 이는 말하자면, 대상을 보는 현실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 남을 집착이나 욕정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안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각자 자기 역사와 성소, 책임과 소명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정결에서 온 현실적인 관점은 사랑을 왜곡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제로 하여금 모든 관계 안에서 자기를 내어줄을 실현하도록 허락한다.<sup>65)</sup> 이 정결함은 사제의 모든 관계를 특징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관계하고 사랑하는 방식인 정결은 사제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사제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사목적 맥락 안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은 목자적 사랑으로 특징지어진다. 목자적 사랑은 사제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sup>66)</sup> 즉 이는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주님과 이웃을 삶의 중심에 놓는 관계이며, 자기 자신보다 내어주는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선택으로써 성숙으로 이끄는 관계이다. 이렇게 사제는 목자적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내어주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독신과 사제직을 실현한다.

사제의 관계에 있어서 사목적 관계뿐 아니라, 친밀한 우정의 관계 역시 여러 면에서 사제에게 긍정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목적 관계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정서적 친밀함, 자기선언과 받아들여짐 등 정서적 욕구에 응답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도

65) Cf. T. Radcliff, *Amare nella libertà*, Qiqajon, 2007, pp.22-34.

66)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23항.

한다. 물론 이 관계가 모호함 안에서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사제와 신자는 복음적 사랑의 상호 소통과 신뢰 안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지지와 치유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sup>67)</sup>

구체적으로 동료 사제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평신도 여성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이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정의 관계는 사제의 심리적, 영성적, 성소적 건강과 성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측면은 사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독신 조건 안에서 사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외로움과 성욕 안에는 단지 육체적이고 생식기적 차원의 욕구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받아들여짐에 대한 친밀함의 욕구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사제의 친밀한 우정의 관계는 이해받고 지지받고 사랑받음의 체험을 통해 친밀함의 욕구를 포함한 여러 정서적 차원의 욕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면에서 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건강한 우정의 관계들 안에서 긍정적인 정서적인 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의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정 안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사제는 불안이나 긴장, 공허함 등의 삶의 도전 앞에서 더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등 내적인 안정성을 갖게 된다. 결국 정결함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제에게 있어서 독신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끌여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제가 친밀한 관계의 빈약함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사제는 점점 로맨틱한 관계나 성적인 관계로 향하게 하는 욕구의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되며, 그 독신은 더욱 쉽게 왜곡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sup>68)</sup>

지금까지 독신을 성소의 차원에서 성숙하고 건강하게 실현해 나

67) Cf. G. S. Manuel, *Living celibacy: Healthy Pathways for Priest*, New York, 2021, p.57.

68) Cf. L. Sperry, *Sexo, Sacerdocio e Iglesia*, Santander, 2012, p.93.

가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양성적 제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제가 독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삶의 형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전인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변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는 어느 한 가지 요소의 변화가 아닌, 인성적, 지성적, 영성적, 사목적인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양성의 과정 안에서 양성 기관인 신학교와 양성자의 동반을 통한 도움<sup>69)</sup>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양성의 제일 책임자로서 사제 본인<sup>70)</sup>이 일상 안에서 자신의 인격, 삶의 체험과 구조 그리고 관계 등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끌어가려는 노력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만이 사제는 성숙을 향한 끊임없는 성소의 여정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도록 초대받는다. 사제의 독신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의 일환으로써 그분의 정결한 사랑의 투신을 더욱 특별히 닮아 살아가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독신 안에서 자신을 더욱 온전히 내어주고 투신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독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여정 안에서 사제는 성소의 삶이 주는 보화를 발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여정은 단순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형태를 넘어서 사제 인격의 전인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해 가는 모든 여

69)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44-53항.

70)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3항; 56항.

정을 포함한다. 형태를 넘어 내면을, 부분을 넘어 전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독신자로서의 사제가 되어가는 여정은 사제의 심연까지 다루어 가는 여정이며,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적 노력이 요구된다.

양성의 여정에 있어서, 부르심이 초대하는 이상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제가 온 존재로 성소에 응답해 갈 수 있으려면 사제의 인간적 조건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 개인의 내면 상황에 대한 이해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는 자신의 인격과 인간 조건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을 포함한 사제의 인간 조건들과 고유한 인격은 사제가 독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제의 조건들이 충분한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는 독신을 왜곡하고 미성숙에 머물게 하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소가 사제의 인격과 삶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 인간 조건들이 성숙함 안에서 부르심의 삶에 통합되어가는 양성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양성적 노력에는 이와 같이 사제가 올바른 지향으로 독신 성소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동시에, 이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표<sup>71)</sup>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사제의 삶에 온전히 내면화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남아, 형식적으로 독신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삶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투신하는 독신이 아니라, 여러 보상들에 머무르거나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등 왜곡된 독신으로 머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소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 안에서 사제는 성소의 삶에서 비일관되게 하는 자신 안에 있는 모호함을 밝혀, 더욱 자유

7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롭고 겸손되이 하느님의 은총에 개방되어 삶의 여정에 투신하도록 준비되어 간다. 이를 바탕으로 사제는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의 균형 안에서 일상을 조직하고 조정해 가면서 더 자유롭고 성실하게 성소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에 성실하게 투신해 가는 가운데 사제는 사제 독신 성소가 주는 선물과 보화를 발견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여정을 간다. 이 일상 안에서 허락되는 경험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성숙한 감수성을 형성해 가게 하며, 이렇게 사제는 일상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화되어 간다. 이처럼 사제 및 독신 성소에 응답해 가는 여정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양성의 여정이다. 이렇게 사제는 매일의 일상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현해 가며 성소가 주는 충만함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

독신이라는 외형은 같아 보여도 규정의 차원에서 절제에만 머물러 있는 독신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투신을 지향하는 독신은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제가 독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소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매일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낼 때, 독신 삶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랑이라는 열매의 풍요로움에 머물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및 교황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_\_\_\_\_,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  
제2차 라테란 공의회, in *Decrees do the Ecumenical Councils: Volume I*, Sheed & Ward an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pp.197~199.  
바로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  
요한 바로로 2세,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_\_\_\_\_,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I-1, 1980.  
교육성성, 「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Orientamenti educativi per la formazione al celibato sacerdotale*, 1974).  
신앙 교리성, 「성 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1975).  
성직자성, 「사제 직무와 생활 지침」(*Direttorio per il ministero e la vita dei presbiteri*, 2013).  
\_\_\_\_\_,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교회 교리서(개정판)』, 2008.

### 2. 단행본

- Cencini, A.,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EDB, 2008.  
\_\_\_\_\_,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2011.  
\_\_\_\_\_,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Bologna, 2015.  
\_\_\_\_\_, *Chiamati alla bellezza*, Milano, 2016.  
\_\_\_\_\_, *Dall'aurora io ti cerco*, Milano, 2018.  
Cipressa, S., "Ragioni teologiche e opportunità pastorali", in Id.(ed.), *Celibato e sacerdozio*, Roma, 2000, pp.49~83.  
Cochini, C., *Origini aposoliche del celibato sacerdotale*, Roma, 2011.

- Daucuort, G., *Preti spezzati*, EDB, 2021.
- Daneli, M., *Liberi per chi?: Il celibato volontario nella Chiesa*, Roma, 2005.
- Guarinelli, S.,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Milano, 2008.
- \_\_\_\_\_, *Un canto a tre voci- aspetti psicologici dei consigli evangelici*, Ancora, 2006.
- Manuel, G. S., *Living celibacy: Healthy Pathways for Priest*, New York, 2021.
- Ravaglioli, A. M., *Psicologia: Studio interdisciplinare della personalità*, EDB, 2019.
- Radcliff, T., *Amare nella libertà*, Qiqajon, 2007.
- Rulla, L. M.,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EDB, 1997.
- Sebastian, B., *Pienamente in Cristo*, San Paolo, 2015.
- Sepe, C., “Attualità del celibato sacerdotale”, in C. Sepe / M. Pacenza(edd), *Solo per amore. Riflessioni sul celibato sacerdotale*, Cinsello Balsamo, 1993, pp.60~63.
- Sperry, L., *Sexo, Sacerdocio e Iglesia*, Santander, 2012.
- Tondo, M., *Di fronte al progetto di vita*, EDB, 2005.
- Uriarte, J. M.,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Bologna, 2016.
- Vella, G., *La comunità, croce d delizia. Le gioie e le difficoltà del vivere insieme*, Milano, 1996.
- Wojtal, T.,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g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Siena, 2015.

### 3. 정기 간행물

- Balugan, L., “Quale maturità per la vita di coppi? Il contributo di Otto Kernberg”, *Tredimensioni* 2(2005), 249~260.
- Fabris, R., “Gli eunuchi per il Regno dei cieli”, *Parola Spirito e Vita* 12(1985), 128~142.
- Galot, J., “Il celibato sacerdotale alla luce del celibato di Cristo”, *La civiltà cattolica* 20(1969), 364~372.
- Marzotto, D., “Il celibato nel Nuovo Testamento”, *La scuola cattolica* 110(1982), 333~370.

## 국문초록

사제들의 독신 삶이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선물인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규정적인 외형 안에서 사제를 구속하는 무거운 짐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욱이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서 기인한 독신 삶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사제 독신이 더욱 본래의 방향을 잃고 왜곡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제들이 독신이라는 부르심의 삶에 온전히 응답해 갈 수 있도록 양성의 여정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올바른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제 독신이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첫째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성소의 삶은 사제의 온 인격과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을 살아가는 주체인 사제의 인간학적 조건, 즉 성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만나 서로 통합된 성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양성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최근에 발표된 사제 양성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교회의 사제 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양성적 관점에 따라 이 논문은 사제가 독신 삶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로써 구체적 삶 안에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양성적 제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사제, 독신, 성, 성소, 양성.